

쇼트트랙 쌍두마차 **심석희** **최민정** 스켈레톤 사상 첫 메달 **윤성빈**

평창 D-3, 금 기대주 누구?

쇼트트랙, '최다메달' 획득 기대
'효자종목' 스피드스케이팅 유력

한국의 아름다운 설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은 메달 텃밭에선 '썩쓸이'를, 메달 유망 종목에선 '첫 메달' 수확을 노린다.

평창올림픽은 오는 9일 개막한다. 30년 만에 한국 땅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자, 첫 동계올림픽 개최인 만큼 한국은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목표로 한다.

한국의 목표는 종합성적 4위 달성이다. 한국은 7개 종목, 15개 세부종목에 218명의 선수를 내보내며, 이는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종합 5위를 달성, 역대 동계올림픽 최고 성적을 거뒀던 한국은 또 한 번 순위 경신을 노린다.

그동안 한국이 동계올림픽에서 수확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한 메달 53개는 모두 빙상 종목에서 나왔다. 이번에도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은 쇼트트랙이다. '쌍두마차'로 불리는 최민정과 심석희가 이끄는 여자대표팀이 든든히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올라있고, 소치올림픽 '노메달'을 기록했던 남자대표팀도 부쩍 오른 기량을 자랑하며 명예회복을 노린다.

쇼트트랙과 함께 '효자종목'으로 입지를 굳힌 스피드스케이팅도 메달 유력 종목으로 꼽힌다. 이 종목의 간판 스타



는 '빙속 여제' 이상화와 '빙속 황제' 이승훈이다.

이상화는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 올림픽 3연패를 노린다. 2017-18시즌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에서 이상화보다 앞선 성적을 썼던 고다이라(일본)와 경쟁 구도가 관련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훈은 평창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매스스타트 최강자로 손꼽힌다. 쇼트트랙 선수 출신인 그는 매스스타트뿐만 아니라 남자 5000m와 1만m 등에서도 메달 획득에 나선다.

평창올림픽에서 종합 최고 순위 경신이 기대되는 이유는 설상 종목에서도 메달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스켈레톤의 윤성빈은 평창올림픽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다. 올 시즌 6번의 월드컵 시리즈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한 윤성빈은 세계랭킹 1위에 올라있다. '스켈레톤 황제' 두쿠르스(라트비아)의 독주를 갠 그는 평창의 흠이점까지 더해 스켈레톤 종목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올림픽 금메달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봅슬레이 2인승의 원윤종과 서영우도 평창에서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2015-16시즌 월드컵에서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던 두 사람은 올 시즌 중반 이후 월드컵 출전을 포기하고 평창올림픽을 위한 훈련에 집중해왔다.

스노보드 이상호도 메달권에 진입할

확률이 높다. 지난해 동계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또 모글스키의 최재우, 김마그너스도 메달권 진입에 도전한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 (사진=뉴시스)

설극장가, '조선 코믹극'이 접수... '조선명탐정' vs '궁합'

영화 VS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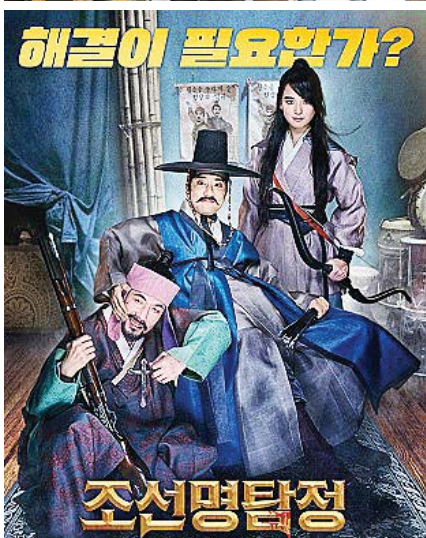
설 연휴, 극장가에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코믹 영화 두 편이 개봉한다. 바로 설극장가에서 꾸준히 사랑받은 국내 최초 코믹 수사 시리즈 "조선명탐정:흡혈 괴마의 비밀"과 참신한 소재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궁합"이다.

◆설에는 역시 '조선명탐정'

먼저, 오는 8일 한국판 셜록홈즈라 불리며 독보적인 한국형 시리즈물의 명맥을 잇는 '조선명탐정' 세번째 이야기가 관객을 찾아온다.

'조선명탐정:각시투구꽃'(2011)에 이어 '조선명탐정:사라진 놈의 딸'(2015)까지 매년 설 연휴에 개봉해 흥행몰이에 성공한 김석윤 감독은 올해 '조선명탐정:흡혈괴마의 비밀'을 선보인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이한 사건 앞에서 김민(김명민)-서필(오달수) 콤비가 의문의 여인 율영(김지원)을 만나게 되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이 펼쳐진다. 조선시대에 벌어진 '흡혈귀 살인사건'



이라라는 소재도 특별하지만, 이번 시리즈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김민-서필 콤비에 또 한명의 주인공이 추가된 것. 극 중 흥일점인 김지원은 첫 사극입에

조선명탐정:흡혈괴마의 비밀

김명민-오달수 '8년 콤비' 기대

궁합

친숙한 명리학, 스크린서 첫 선

도 불구하고 김명민, 오달수와 함께 자연스러운 연기를 선보인다. 김지원은 괴력을 소유했지만, 기억을 잃은 의문의 여성 율영을 맡았다. 액션부터 감정선까지 아우르는 김지원의 연연이 기대된다.

'조선명탐정' 시리즈의 백미 김민-서필 콤비의 케미스트리도 더욱 깊어졌다. 첫 시리즈부터 8년이란 세월이 쌓인 김민-서필 콤비의 껌딱지 케미와 괴력의 여인이 만들어가는 신선한 트리오 케미는 관객에게 기대 이상의 재미를 안길 예정. 게다가 사건 이면에 숨겨진 감동있는 사연이 반전을 선사한다.

막강한 연기 내공을 자랑하는 '연기본좌' 김명민과 스크린 천만 요정 오달수가 이번 설에는 어떤 활약으로 사건을 해결할지 확인해보자.

◆신년 운세와 함께 '궁합' 봐야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또 다른 코믹 영화 '궁합'(감독 홍창표) 역사화제작이다.

사주와 궁합은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하게 자리잡아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명리학으로 발전해왔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점집이나 사주카페를 방문해 자신의 신년 운세를 점치거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앞두고 조연을 얻기도 한다. 이렇게 전국민에게 친숙한 사주와 궁합이 영화 '궁합'을 통해 처음으로 스크린에 펼쳐진다.

'궁합'은 '관상' 제작진의 두번째 역학 시리즈다. '관상'이 다소 선이 굵은 역사 드라마였다면, '궁합'은 밝고 유쾌하며 가볍게 보기 좋은 영화라는 점이 차별점이다.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궁합'은 조선 최고의 역술가 서도윤(이승기)이 혼사를 앞둔 송화옹주(심은경)와 부마 후보들 간의 궁합 풀이로 조선의 팔자를 바꾸려는 이야기다. 개인의 기구한 운명부터 각기 다른 사주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인간들의 사연까지, 사주팔자에 얽힌 모든 인연을 총망라하는 스토리가 그려진다.

충무로를 대표하는 20대 여배우 심은경과 예능이벤트 예능, 드라마면 드라마 다양한 분야에서 중형 무진하는 대세 배우 이승기가 혼사를 앞둔 옹주와 조선 최고의 역술가로 만나 앙상블을 선보인다.

전 세대를 관통하는 최강 캐스팅과 유쾌한 스토리, 흥미로운 소재로 기대감을 모으는 영화 '궁합'은 오는 28일 개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늘의 날씨

2월 6일

음력 : 12월 21일

수도권 날씨

-14 ~ -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32 | 해질 / 18:01

연천 -18/-6

동두천 -17/-5

가평 -17/-6

파주 -19/-6

서울 -14/-6

양평 -17/-5

인천 -13/-7

수원 -14/-7

용인 -14/-7

평택 -15/-5

백령도 -10/-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국제올림픽위원회(IOC·사진)가 5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으로 도핑 의혹에서 벗어난 러시아 선수와 코치 15명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불허했다고 발표했다.

▲ '평창동계올림픽 휴전결의'(the Olympic Truce Resolution for PyeongChang)를 지지하고 이번 대회를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도모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겠다는 다짐을 하는 '평창올림픽 휴전벽' 제막 행사가 5일 평창선수촌에서 열렸다.

▲ '탁구 유망주' 조대성이 '골프 여제' 박인비가 속한 매니지먼트사 브라보엔뉴와 계약했다.

▲ 신태용호가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국내와 선수들의 마지막 점검 무대였던 터키 전지훈련을 마치고 5일 귀국했다. 오는 3월 19일 유럽 원정 평가전을 위해 다시 모일 예정이다.

▲ 안병훈이 2018년 처음 출전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대회 웨이트 매니지먼트 피닉스오픈에서 공동 23위(9언더파 275타)에 올랐다.

▲ 장애인 노르딕스키 간판 신의현(창성건설)이 2018 부오카티 세계장애인노르딕스키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2018 평창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전망을 밝혔다.

▲ 유도 전 국가대표 이원희와 탁구 전 국가대표 윤지혜가 오는 28일 결혼식을 올린다.